월요광장

야누스의 두 얼굴 그리고 문(門)의 안과 밖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겉과 속이 다르거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람을 흔히 야누스에 비유한다. 이는 위선자라는 비난과 다를 바 없다. 앞과 뒤가 한결같은 사람은 물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드물다. 그런데 요즘은 시절이 시절인지라 상대방을 위선의 얼굴을 한 야누스에 빗대는 일들을 더 흔하게 본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야누스의 두 얼굴에 대한 비난의 비유는 우습게도 무지와 오해에서 나온 것이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들어 있다.

야누스의 두 얼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위선과 가면의 야누스지만, 다른 야누스는 서로 다른 가치의 차이를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잡힌 토대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능력에 대한 비유다. 위선을 상징하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는 이미 너무나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연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야누스다. 이렇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가치의 선택이다.

야누스는 로마의 고유한 신화에서 등장하는 '문의 신'으로 앞과 뒤에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졌다. 문은 크기와 용도에 관계없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 우리는 문을 안쪽에서 사용해서 이동하면 나간다고 말하고, 바깥에서 안을 향하면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 간단하며 평범한 말 속에 애써 야누스라는 문의 신까지 만들어 가며 강조하는 속 깊은 사정이 있다.

문은 안과 밖이라는 두 얼굴을 통해서 안과 밖의 경계를 짓고 서로의 차이를 구분한다. 안은 밖의 세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고, 밖은 관계를 맺고 일정한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도모하는 세상의 영역이다. 그래서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밖으로부터 안을 지키는 것에서 그 역할을 끝내지 않는다. 이 지점에 야누스에게 왜 두 얼굴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있다.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열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문은 익숙하고 편하지만 고립된 어제와 결별하는 장소이고, 낡은 생각과 구시대적 습관을 버리는 것이며, 새로운 시도와 길에 대한 표현이자 상징인 것이다.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고 편하다 못해서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 말과 생각,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에는 과거를 향해 잠긴 문이 있다. 여기에 과거의 흔적만 있을 뿐 미래의 문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로 향한 문의 안쪽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와 함께 오는 변화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에 의하면 문의 신은 신들의 모임에 첫 번째로 입장하는 특권을 가졌다. 아무리 대단한 로마의 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의 신이 앞장서서 문을 열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재치 넘치는 이야기다. 닫힌 문이 먼저 열려야 다음의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문을 누가 여는가가 문제다.

문은 안에서만 열리는 것이므로, 문을 여는 일은 안에 있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1년 중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이 서양에서는 '야누스의' 달이 되고 새해 첫날 야누스에게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실제적 문뿐만 아니라, 비유로서의 문을 수없이 열고 닫는다. 관계의 문, 악습의 문, 대화의 문, 역사의 문 등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문의 안과 밖에 있다.

어떤 문을 닫고 어떤 문을 열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정한다. 다만 이 선택이 감정과 망상적 기대와 단순한 끌림에 따르는 것이라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걸어 잠그는 것이다. 문은 열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되는 벽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안과 바깥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허물기 어려운 단절의 벽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미래의 길을 향한 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수잔 손탁을 빌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이든,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더라도 그러나 함께 바보가 되지는 말자는 것이다.

꿈꾸는 2040

영화의 계절을 맞은 광주

임 용 철
위민연구원 이사
다큐 '나고야의 바보들' 감독

바야흐로 광주는 영화의 계절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광주극장에서는 현재 '개관 86주년 광주극장 영화제'가 열려 존재 가치를 알리고 있다. 다음 달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12번째 열리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예매를 시작했고, 광주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오는 12월 개최되는 '광주독립영화제'도 어느덧 10년을 맞아 다양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제 '안녕! 영화제'가 광산문예회관에서 11월 열릴 예정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면서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관람객들을 받던 극장가도 이제 영화관 좌석에 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딱지를 떼고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침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화계도 초토화되다시피 큰 타격을 입었다. 극장 관객 수 급감은 물론이고 제작 중인 영화가 중단되는 일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극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과 감독들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다. 한국에서 만든 이 콘텐츠로 넷플릭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회사로 자리 잡았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출연 배우들까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문화 강국'의 꿈이 지역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지역의 사정은 녹녹지 않다. 현장에서 묵묵히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지역 영화인들은 적은 예산과 인프라 여건에 더해 방역 부담으로 섭외에 어려움이 많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친 영화도 관객들을 만날 수 없어 영화 제작 현장은 온기를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제작하고 있는 근로정신대와 관련된 다큐 영화도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현지 촬영을 할 수 없어 현재는 제작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OTT시장의 성장으로 변화된 영화계의 생태에 맞게 지역 영화인들도 OTT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결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고 지역 영화계에도 희소식이 전해진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영화인들의 꾸준한 요구로 2019년 7월 '광주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다. 영화·영상 관련 정책이나 비전 자체가 사실상 전무했던 광주 지역에 영화·영상 생태계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조례의 골자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광주시에 영상영화 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영화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 교육과 향유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전당·광주극장·독립영화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영화제 육성, 영화·영상분야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 단편영화 지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의 영화인들이 기대가 높다.

그동안 영화 관련 정책이나 지원은 광주시 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였지만 영화·영상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역할까진 못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들을 수행했던 광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어진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 전에 광주시 문화산업과 주관으로 지역의 영화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광주시 영화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TF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그간 각 단체별로 진행되었던 영화·영상 사업에 대한 소회와 문제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화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당 조직이 발족된다면 광주시를 대표하는 영화 기구로서 지역 영화·영상인들의 거점이 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상에 대한 자양분을 공급, 명실공히 '영화 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동안 목말랐던 문화적 욕구를 소비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지역의 문화산업이나 영화산업이 성장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향유하는 일반 시민들이 없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시민들께서 지역의 영화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관을 찾아 주길 바란다.

기 고

이산화탄소 잡는 '대나무 종이'

김 강 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는 골칫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전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처럼 대나무가 가치를 잃은 것은 사용처가 없어지게 되면서부터이다. 옛날에는 농사와 건축뿐만 아니라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재였고, 바구니 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주재료이기도 했다. 그 시기 대나무밭은 주요한 작물로 대접받았고 겨울철 농가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중국산에 밀리면서 사양 품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플라스틱에 밀려 그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쓸모가 없어진 대나무는 관리 대상에서도 벗어나 오늘날 농촌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게다가 대나무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산림과 논밭을 망치는 주범으로도 낙인찍혀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나무의 용도는 다양하다.

중국에서는 9세기 이전 당나라 시대부터 종이의 재료로 사용해 왔다. 오늘날에도 대나무 펄프는 주요 사업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번성하고 있다. 나아가 대나무 종이의 질도 전통 한지인 닥나무 종이에 버금간다고 알려져 있다. 제조 방법 또한 전통 한지 제조법과 거의 같아 특별한 기술을 빌리지 않고서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복건성, 강서성, 광동성 등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서는 대나무 종이 산업이 널리 성행하고 있다. 대나무 종이 제조사 중쮸에쓰(中越) 펄프주식회사는 2017년 대나무 종이 매출액이 939억 엔(약 1조 원)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도 대나무 종이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농림수산성이 직접 관장한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대나무 자원을 잘 활용하여, 나무를 베지 않고도 종이를 만들어 쓰는 일석다조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 때문이다. 1년이면 곳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반경 7~8m정도로 퍼져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대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무척 많다는 것이다. '국제 죽등 네트워크'(INBAR)에 따르면 대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5년생 기준으로 할 때 1ha당 탄소(C)저장량이 5.5톤이나 된다. 상록수 계열의 소나무 등보다 네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나무의 가치와 그 효용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처럼 대나무의 육성과 관리 산업화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대나무 종이가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社 說

이재명·이낙연 그간 쌓인 앙금은 털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2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또한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호소를 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도 "우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같은 DNA를 가진 하나의 팀원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가 부족한 점을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수시로 조언받고,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가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활짝 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전 대표는 이 후보로부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선대위 참여 방안도 참모 간 논의를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선대위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로써 경선 과정에서 대립하며 쌓였던 양측의 앙금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이날 회동 장소 앞에 몰린 수십여 명의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이 후보 지지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사실이 보여 주듯이, 아직도 화학적 결합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측과 앙금을 털어낸 이 후보가 과연 호남을 끌어들이고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찬양 윤석열 '개 사과'로 국민 조롱하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찬양' 발언 논란 이후 사흘 만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로부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이 돌잔치 때 사과를 잡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두고도 "사과 요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가 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일었다. "광주를 찾아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던 윤 전 총장은 당 안팎의 비난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이후 윤 전 총장의 반려견 토리의 SNS 계정에 누군가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과는 개나 주라는 것이냐"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파문이 커지자 '실무진 실수'라며 사진을 삭제하고 계정도 폐쇄했지만 '국민을 개 취급하며 조롱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두환 찬양' 발언과 그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여 준 행태는 과연 그가 대통령 출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윤 전 총장은 '유감'이나 '송구'라는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게 아니라 분노하는 국민과 호남인에게 '2차 가해'를 한 데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과

사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다. 물론 사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이브의 사과'는 원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들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명중시킨 '빌헬름 텔의 사과'는 스위스 독립운동과 연관돼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사과'는 트로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 신화는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고 쓰인 사과를 연회장에 던지면서 시작된다. 이 황금사과를 놓고 세 여신인 헤라·아테나·아프로디테가 다툼을 벌인다. 심판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 여신들은 각기 자신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며 파리스를 유혹한다. 헤라는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되고, 헤라와 아테나의 질투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옹호'와 '개 사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호남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애초 발언의 요지였다.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국가관과 호남 비하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은 돌잔치에서 사과를 쥐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지못해 유감 표명을 한 날 다시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5·18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역사다. 광주 시민들은 오랫동안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시민들의 한과 응어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개 사과'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조롱을 한 것이다. 생의 황혼이 다가오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학살 주범 전두환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과는 풍요와 사랑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한편으로 기만·죽음 같은 부정적 의미로도 환기된다. 윤 전 총장의 망언과 '개 사과'가 멸망을 자초한 '파리스의 사과'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정치인은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사실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